

# 현대차그룹, 英·인도 등 판매 신기록... 친환경 혁신 주효

친환경차 중심 브랜드 경쟁력 강화  
작년 英 판매 19.6만대... 역대 최대  
美 공장 신설 등 글로벌 공략 가속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는 올 상반기 북미를 비롯해 신형 자동차 시종으로 떠오르는 인도를 비롯해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시장인 영국에서 판매량 기록을 새롭게 작성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래 브랜드 경쟁력도 쌓아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선진시장'으로 평가받는 영국서 지난해 역대 최대 연간 판매대수를 기록했다. 총 19만6239대로 올해 20만대 판매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현대차·기아·제네시스 3개 완성차 브랜드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0만7326대를 판매했다. 영국은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자동차 수요가 큰 지역이며 친환경차 비중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변화가 빠른 국가다.



아이오닉5



/현대차 EV9

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특히 전기차 판매량은 같은 기간 60.9% 증가한 6만 1883대로 친환경차종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였다.

현대차·기아는 상반기 미국에서 친환경차를 포함해 총 81만 7804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보다 0.3% 줄었지만 제너럴모터스, 토요타, 포드 다음으로 4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5위인 스텔란티스(68만 1532대)보다는 13만 대 넘게 앞서고 있다. 현대차는 43만 1344대, 기아는 38만 6460대를 각각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4분기 미국 조지아주에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과 함께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지 수요와 정책에 적합한 생산·판매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시장 변화에 지속적으로 탄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 제공

ysw@metroseoul.co.kr YouTube

점유율은 3년 연속 10%대(2022년 11.25%, 2023년 10.31%, 올해 상반기 10.66%) 영국 내 신차 10대 중 1대꼴로 현대차그룹 차량이 판매되고 있는 셈이다. 브랜드별 성적도 괄목할 만하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는 9위, 기아 4위, 제네시스는 39위를 각각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올 하반기 아이오닉5N을 비롯해 친환경 라인업을 확대하며 판매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갈아치웠

다. 지난해 현대차(59만5000대)와 기아(25만5000)의 판매량을 넘어설지도 관심사다.

올 상반기 현대차는 인도에서 27만 2207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26만 6760대) 대비 2% 증가세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13.8%로 2위다. 기아도 같은 기간 11만 2844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지만 나뭇은 크지 않았다. 시장 점유율은 5.7%로 마르티 스텔란티에 이어 현대차, 타타모터스, 토요타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4위 토요타(5.8%)와는 0.1% 차이에 불과하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 생산량을 확대

하며 점유율 확대에 드라이브를 건다. 기존 첸나이 1·2공장에 2022년 GM으로부터 인수한 푸네 공장(탈레가온 공장)을 재정비해 연간 100만 대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아의 생산 능력을 합산하면 연 150만대 생산이 가능해 연간 17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마르티 스텔란티의 점유율을 바짝 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완성차 시장인 북미에서는 친환경차를 앞세워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미국에서 총 15만 5702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



HD현대삼호가 10일 전남 영암에 위치한 HD현대삼호 아드에서 제2돌핀안벽 준공식을 진행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명창환 전남부지사,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

## HD현대삼호, '제2돌핀안벽' 준공

권오갑 회장 "친환경 선박 건조 극대화" 좌우로 선박이 접안할 수 있어 안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삼호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에 맞춰 선박 접안(接岸)시설을 확충했다.

HD현대삼호는 10일 '제2돌핀안벽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돌핀 안벽은 육지에 인접한 바다에 튼튼한 기둥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연결한 돌출형 시설이다. 일반 안벽과 비교해

이번에 준공된 돌핀안벽은 연결도로를 포함한 총연장 530m 규모로 선박 건조작업을 지원하는 대형 크레인 2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안벽 좌우로 2척씩 총 4척의 초대형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권오갑 회장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건조를 극대화해 서남권의 핵심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한화에어로, 1.4兆 '자주포패키지' 수출

루마니아 국방부 공급 계약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도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54문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9은 한국군을 포함한 전세계 10개국 사용 중인 베스트셀러 자주포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9일 루마니아 국방부와 부쿠레슈티 현지에서 1조 3828억원 규모의 자주포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현지업체와 협력해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차 36대 등을 2027년부터 순차 납품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의 PzH 2000, 튀르키예의 퍼티나(Firtina) 자주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쟁 제품을 제치고 이번 사업을 획득했다.

4개월 동안의 경쟁 끝에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루마니아 정부와 세부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계약에는 K9과 K10 외에도 정



루마니아와 공급 계약을 맺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오른쪽)와 K10 탄약운반차의 모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찰·기상 관측용 차륜형 장비, 탄약 등 '자주포 패키지'가 포함되면서 루마니아에 방산 토탈 솔루션을 제시한 것이 최종 계약을 이끌었다.

앞서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방산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루마니아의 10번째 운용국 합류로 K9(K10 포함)의 누적 수출 총액은 13조

원을 돌파하고 NATO 회원국 중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는 6개국까지 확대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보병전투장갑차(IFV)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뛰어들어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혹독한 테스트를 견뎌 호수군의 최종선택을 받은 레드백 장갑차를 앞세울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현대로템-PGZ, K2PL 컨소시엄 연장

(폴란드형 K2 전차)

내년까지 K2전차 180대 납품 예정

현대로템이 폴란드형 K2 전차(K2PL) 본 계약을 위한 신규 합의를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9일(현지시간)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Z와 폴란드형 K2 전차(K2PL) 생산·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규 컨소시엄 합의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규 합의서 체결은 기존 컨소시엄 계약 시한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컨소시엄 계약을 연장하고, K2PL 2차

이행계약 연내 체결을 위해 컨소시엄간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K2PL 컨소시엄은 2022년 7월 현대로템과 폴란드 군비청이 맺은 총괄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폴란드 현지 K2PL 전차 생산 역량 구축 및 적기 납품을 위한 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46대의 폴란드 K2 전차(K2GF)를 조기 및 적기에 납품했으며, 앞으로 올해 하반기 38대, 내년에 96대 등 총 180대를 납품한다. /양성운 기자

## 두산에너지빌리티, 안동복합발전소 가스터빈 공급

계약기간 10년...안정적 매출 확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안동복합발전소에 가스터빈을 공급한다. 자사 가스터빈의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남부발전과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 가스터빈에 대한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스터빈은 두산

에너지빌리티가 지난 1월 한국남부발전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380MW(메가와트)급 제품이다.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 지역에 569MW 규모로 2027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자사가 공급한 가스터빈에 대한 ▲고온부품 공급 및 재생정비 ▲계획정비 ▲두산 가스터빈 맞춤형 디지털 솔루션 적용 ▲성능 및

정비일정 보증 등을 수행한다. 계약기간은 준공 이후 10년이다.

가스터빈 장기유지보수 서비스는 가스터빈에 대한 고도의 종합적 역량이 요구돼 그동안 주로 해외 가스터빈 원제작사들이 독점해왔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가스터빈 원제작사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장기 안정적인 매출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차현정 기자 hyeon@